



이응윤, 최은숙(주은, 주영) 선교사 이야기(2024년 10월 29일)

샬롬! 주님사랑하시는 교회와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리며 지난 몇 달 동안 있었던 사역들을 보고하고 기도제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생명수비전센터 건축 상황

생명수비전센터 건축은 설계도가 완성되었고 구청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9월부터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건축규모를 축소하고(한 건물안에 교회와 센터의 기능을 통합) 설계도와 설계사를 바꾸게 되어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사실 9월에 공사를 시작했더라면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9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 이곳에 50년만에 큰 비가 와서 홍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우기를 피해 건기가 시작되는 11월부터 공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건축부지에 와서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 있었고 헌금도 드렸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공사는 건축업을 하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들 5명이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성도들이 각자의 일을 내려놓고 먼저 교회건축에 헌신하기로 한 것입니다. 매주 수요기도회를 마치고 건축위원회가 모여 진행상황을 나눕니다(위 우측에서 두번째 사진). 얼마전에는 건축위원들이 전신주를 심어 전선을 연결하고 수도물도 건축부지로 끌어왔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예산을 채워주시도록 기도하면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은혜와 평강교회 소식

은혜와 평강교회는 주일예배와 수요기도회, 셀그룹과 심방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간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은 성도들의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몇 분 성도님들의 가족이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성탄절에는 가족초청잔치를 열어 복음을 전하고 선물도 주려고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행 16:31)는 말씀처럼 성도들의 온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축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여름 단기선교 사역

지난 7,8월에는 단기선교사역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동백동산교회 청년부(9명), 시흥동산교회 청소년부(14명), 봉동중앙교회 중등부(38명) 단기선교팀이 와서 타이야이 캠프를 방문해서 아이들을 위로하고, 또 여러 학교들을 방문해서 K-pop 과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매년 단기팀 사역을 통해서 이 땅의 미래 지도자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센터가 건축되면 토요학교를 열어서 체계적으로 아이들의 교육과 신앙을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성경강의 및 선교사훈련 사역

지난 6월에는 AM 105 선교사 훈련(AMTC)이 치앙마이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풀러신학교에서 배운 선교학교재로 3일동안 '선교와 성경' 과목을 강의했습니다. 이번에는 몽골인 6명과 한인 4명의 선교사 및 선교후보생들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훈련생들이 선교사로, 교회의 리더로 잘 준비되어 복음의 일꾼, 세계선교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10월 중순에는 태국 북동부의 코랏에 있는 싹띠팝사역자 학교에서 한 주 동안 신약개론을 강의했습니다. 치앙마이 교회개척자 훈련원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매년 한 주간씩 구약개론과 신약개론을 번갈아 가면서 강의를 합니다. 코랏까지 항공편과 또 육로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매년 강의를 하고 돌아올 때는 큰 기쁨과 보람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20대 초반인 사역자들도 몇 명 있었는데 일꾼이 절실히 필요한 이 땅에 전도자로서, 목회자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방문하는 천사들과의 교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한국과 싱가포르와 미국에서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난 9-10월은 특별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도 받고 교회의 비전과 건축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와 생명수비전센터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지중에 하나님과 천사들을 섬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방문객들을 잘 섬기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와 그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박국 2:14)

땡강의 범람으로 치앙마이에 큰 홍수재해가 났지만 이 땅이 영적으로는 큰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이 땅을 덮어서 태국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태국교회의 일꾼들을 통해서 7,000 만명의 태국사람들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날이 빨리 도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1.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들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구원받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2. 건축허가가 나와서 11월에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부족한 건축비(2억5천만원)를 채워주시도록.
3. 건축을 지휘하는 이응윤 선교사와 건축업을 하는 성도들 5명(공, 와, 마태, 쳇, 용)에게 건강과 지혜와 건축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주시도록
4. 딸 주은이는 싱가포르 나섬교회 선교관에 거주하며 유아부 사역과 Singapore Bible College 학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는 싱가포르 학생비자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5. 아들 주영이의 건강과(무릎, 손목관절의 통증) 학업(석박사과정) 그리고 예우림교회 섬김(셀그룹 리더, 통역, 교회홍보 팀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세요.

연락처

※ 이메일: johnlee64@gmail.com / yingyin@hanmail.net

※ 전화: 태국: (66) 082-508-6003 / 카톡 아이디: johnlee64

후원계좌

KEB 하나은행: 920-982392-879 (예금주: GMS 이응윤/최은숙)

국민은행: 076-21-0683-934 (예금주: 이응윤)